

광주시 의사회장 조대출신 탄생할까

조선대 출신 의사회장이 탄생할지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창립(1987년) 이후 지금까지 전남대 의대 출신들이 도맡아왔다. 이는 전남대 의대가 1946년 문을 연 데 비해 조선대 의대는 이보다 20년이 뒤늦은 1966년에 개교, 전남대 출신 의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대의원 많은 전대출신 수십년 간 회장 '독식' 다음 달 24일 선거 때 이정남씨 추대 '관심'

대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전남대 출신이 자연스럽게 회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외로 인파에서는 이번엔 조선대 출신이 회장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오는 3월24일을 제10대 의사회장 선거일로 정했다. 지난 9대 회장 선출과정에서 조선대 출신 의사들은 의대 개교가 늦은 탓에 배출 의사 수가 적어 선거를 통해서도 조선대 출신이 회장을 맡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남대 출신들이 회장직을 독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원로 의사들이 나서 중재 위원회를 꾸려 차기 회장은 조선대 출신이 맡는다는 합의를 도출한 뒤 전남대 출신 허정 에덴병원 대표 원장을 제9대 회장에 추대했다.

허정 회장을 비롯한 현 의사회 집행부는 광주지역 의료계가 전남대·조선대 양대 의대 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조선대 의대도 개교 40년을 넘기면서 지역에 공헌한 바가 지대한 만큼 조선대 출신이 의사회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의사회 집행부는 이 같은 논리로 이번 회장에 뜻을 두고 있는 수명의 전남대 출신 의사들을 설득하는 한편 향후 구성될 대의원들을 상대로 설명과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8일~27일 꾸러질 5개 구 의사회 집행부(의장 및 대의원 선출)를 시의사회가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조선대 출신 의사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는 이정남 신경정신과 원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칙 위반' 학부모에 문자 전송

광주시교육청, 80개 초·중학교 '그린 마일리지'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체벌 위주의 학생 선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를 도입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신학기부터 초·고교 10곳씩과 중학교 60곳 등 모두 80곳에서 그린 마일리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휴연이나 음주 등 규정 위반 시 벌점을 부여하고, 교내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취상해하는 방식이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도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받게 되고 상점이 많아지면 상품이나 선행상을 주도록 했다.

기존의 칭찬위주 녹색카드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학생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았던 과도한 물리적 체벌을 상·벌점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사가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각 학생의 상·벌점을 입력하면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 권장하는 학교 내 '자치

법정' 운영도 권고할 계획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학생들이 '관·검사' 역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벌점 부과의 공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에 따른 무관심, 벌점 과다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의 한계성 등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린 마일리지를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된 과도한 체벌 등을 원칙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성과 등을 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일 오전 열린 광주 충장중학교 제 37회 졸업식에서 김용오 교장이 졸업생 98명에게 '힘찬 새 출발'의 의미가 담긴 장미꽃을 전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미꽃 받고 '장밋빛 미래' 설계하세요"

눈길 끄는 광주·전남 '이색 졸업식'

광주·전남지역 학교들의 '이색' 졸업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졸업식을 한 광주 충장중 졸업생 98명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받았다. 이 학교 김용오 교장이 졸업생들의 '장밋빛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한 것이다. 광주 수피아여중 3학년 2반 학생들은 이날 졸업식 뒤 별도로 교정에 모였다. 10년 뒤 다시 만날 것을 서로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동백나무를 함께 심기 위해서였다.

또 무정초교는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학창시절 회고와 바람 등을 담은 졸업생 영상편지를 상영할 계획이다. 18일 졸업식을 하는 장흥 안양초교는 학생들이 일일이 졸업장을 받는 동안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는 아이들의 꿈을 담은 동영상 상영할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리는 담양 한재초교 졸업식에서는 29명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된다. 동문이나 학교 운영회 등에서 보내온 장학금을 모아 전체 학생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2분 해질 18시 12분 달돋이 21시 17분 달질 08시 34분

곳곳 안개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늦게부터 비가 내리겠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흐림	5/17C
목포	흐림	5/15C
여수	맑은 뒤 흐림	7/16C
완도	맑은 뒤 흐림	5/15C
구례	흐림	0/17C
해남	맑은 뒤 흐림	1/15C
장흥	맑은 뒤 흐림	1/15C
고흥	맑은 뒤 흐림	4/17C
순천	맑은 뒤 흐림	2/16C
영광	흐림	2/14C
진도	맑은 뒤 흐림	2/15C
전주	맑은 뒤 흐림	0/17C
남원	맑은 뒤 흐림	-1/18C
옥산도	흐림	7/14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1.0~3.0m	목포 03:51	09:0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1.0~2.5m	여수 10:53	04:34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씨						
최저/최고	10/13	6/13	3/11	0/6	-1/7	0/8

오늘 밤 강풍 동반 비

광주·전남 예상강수량 5~10mm

12일 밤부터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목포와 무안 등 남서해안지방부터 밤늦게부터 비가 오겠으며,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13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예상강수량은 5~10mm로 예상된다. 또 광주·전남은 12일 오후부터 돌

풍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늦게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 예비특보를 내릴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 13일 광주의 기온은 10~13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6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시작되면서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장 관사 이전 계획 백지화

광주시가 최근 시장 관사를 영빈관 기능을 갖춘 곳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광주시는 11일 '실무 차원에서 사무지구 아파트에 있는 시장 관사의 이전 필요성을 느껴 신계발 지역 아파트 등으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바깥 태 시장의 적극적인 만류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사단 방문과 10월 열리는 광주세계광(光)엑스포 등 국

제행사에 대비해 영빈관 기능을 갖춘 관사를 적극 검토했으나 일부에서는 경제난 등을 들어 반대해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광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려면 귀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영빈관 기능이 '호화관사'로 초점이 흐려지는 바람에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18 묘지 '매화동산' 조성 518그루 시민들이 심는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추모공간으로 변신을 꾀한다. 11일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오는 28일 민주묘지 정문 옆 오월동산(4천290㎡)에 '매화동산'이 조성된다.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오는 20일까지 일반인과 학생 등 5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이들에게 매화나무를 한 그루씩 나눠준 뒤 각자의 명찰이 달린 매화나무를 오월동산에 심도록 할 계획이다. 또 5·18 민주묘지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에게 안내문을 발송, 참배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 민주정신 선양을 위해 올해 5·18 인성교과서를 채택한 광주 지역 고등학교 4곳을 포함한 중학교 2곳, 초등학교 2곳 등 8곳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5·18 민주묘지관리소 김명호 소장은 "5·18 민주묘지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배움의 장인 동시에 쉼터를 겸한 공간이 되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상품권 판매**

신상권 판매: 100원, 300원, 500원, 1000원

062) 671-1199

리첸 RITCHEN

리첸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 515-2272